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2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6월 22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해고 1,000일째 6/24 모이자 콘티넨탈로!



노조파괴 3년, 해고 1,000일

콘티넨탈의 노조파괴도 3년째를 맞고 있다. 박윤중, 김종원 두 동지의 해고생활도 3년째다. 벌써 1,000일을 넘겼다. 지난주 보쉬전장의 정근원 동지가 복직했고 사업주 재판이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콘티넨탈 자본도 해고자 문제를 비롯해, 임금차별, 노조탄압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여야할 때이다.

책임회피 그만!

그동안 콘티넨탈 자본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행태를 반복했다. 창조컨설팅과 금융거래 내역이 밝혀져도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빴고, 부당해고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임금차별 문제도 결국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한 것이 없다. 자본은 그저 책임회피밖에 한 것이 없다. 현재 지회는 본사 앞 투쟁을 통해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본은 거부하고 있다. 지회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 콘티넨탈 자본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법원 판결이 나온 해고자 문제는 해결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연대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다. 노조파괴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는 소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콘티넨탈지회 조합원들은 당당한 15만 금속노조의 일원이다. 이 말은 전국 15만명의 동지들이, 작게는 대전충북지부 2,500명의 동지들이 콘티넨탈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연대도 굳건하다. 2012년 노조파괴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많은 사업장들이 콘티넨탈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왔다. 해고 1,000일을 맞아 진행되는 결의대회에도 많은 동지들이 연대할 것이다. 자본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로 뭉쳐서 투쟁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갑을오토텍에 용역깡패가 판친다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의 용역깡패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신중 노조파괴를 선보이고 있는 갑을오토텍에서 결국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신중 노조파괴가 폭로되고 노동부, 검찰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정체가 탄로난 용역깡패들이 벌이는 마지막 발악이다.

갑을오토텍의 용역깡패들이 15일, 17일 연달아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흥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 17일 폭력으로 26명의 조합원들이 병원에 실려갔다. 한 명은 눈 주위 뼈가 함몰돼 시력상실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한 명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충남 경찰, 검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쫓겨났던 용역깡패들이 출근하는 걸 비호하려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신중 노조파괴라고 불리지만 결국 자본의 노조파괴 본질은 똑같다. 깡패들의 폭력으로 조합원들 위축시킬 생각이었겠지만 이번엔 잘못 건드렸다.

1,000일의 다짐, 그 약속을 위하여! 콘티넨탈 투쟁승리 결의대회

○일시: 6월 24일(수) 18시30분
○장소: 콘티넨탈 정문 앞

비정규직 없는 세상! 충북 차별철폐대행진 문화제

* 일시: 6월 23일(화) 18시30분
* 장소: 청주 철당간